

로하스·양의지·알칸타라 등 골든글러브 후보 87명 확정

미디어 관계자 대상 투표 최종 10명 확정

오는 11일 오후 시상식에서 수상자 공개

2020시즌 프로야구 골든글러브를 경합할 후보자들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 87명을 발표했다.

이중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10명이 수상 영예를 누리게 된다.

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투수는 규정이상 출루,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타이틀 홀더에 한해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다 수비인임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인임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투수 부문 최종 후보는 라이트, 투진스키, 원종현(이상 NC), 알칸타라, 유희관, 최원준(이상 두산), 데스파이네, 배재성, 소형준, 주권, 쿠에바스(이

정 등 5명이 경쟁하고, 유격수 후보는 NC 노지현, 두산 김재호, KT 심우준, LG 오지환, 키움 김하성, KIA 박찬호, 롯데 마차도 등 7명이다.

세부 포지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권희동, 알테어, 이명기(이상 NC), 김재환, 박건우, 정수빈(이상 두산), 로하스, 배정대, 조용호(이상 KT), 김현수, 홍창기(이상 LG), 박준태, 이용규, 이정후(이상 키움), 나지완, 최원준, 터커(이상 KIA), 손아섭, 전준우(이상 롯데), 구자욱, 박해민(이상 삼성), 최지훈(SK) 등 총 22명이다. 시즌 후 한화 이글스에서 키움으로 이적한 이용규는 키움 후보로 등재됐다.

1루수 후보는 NC 강진성, 두산 오재일, KT 강백호, LG 라모스, KIA 유민상, SK 로맥 등 6명이 등록됐다. 2루수 부문은 NC 박민우, 두산 최주환, KT 박경수, LG 정주현, 롯데 안치홍, 삼성 김상수가 각축을 벌인다.

3루수 부문은 NC 박석민, 두산 허경민, KT 황재균, 롯데 한동희, SK 최

정 등 5명이 경쟁하고, 유격수 후보는 NC 노지현, 두산 김재호, KT 심우준, LG 오지환, 키움 김하성, KIA 박찬호, 롯데 마차도 등 7명이다.

세부 포지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권희동, 알테어, 이명기(이상 NC), 김재환, 박건우, 정수빈(이상 두산), 로하스, 배정대, 조용호(이상 KT), 김현수, 홍창기(이상 LG), 박준태, 이용규, 이정후(이상 키움), 나지완, 최원준, 터커(이상 KIA), 손아섭, 전준우(이상 롯데), 구자욱, 박해민(이상 삼성), 최지훈(SK) 등 총 22명이다. 시즌 후 한화 이글스에서 키움으로 이적한 이용규는 키움 후보로 등재됐다.

NC, 두산, KT는 전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했다. KT는 총 14명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올 시즌 KBO 리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그를 담당할 취재자와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이 투표에 나선다.

주인공은 11일 오후 3시4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수단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된다. 팬들은 KBS 2TV와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생중계를 접할 수 있다.

김미희기자

전북 모라이스 감독 “선수들 최선 다해...어린 선수들 좋은 경험”

K리그1 챔피언 전북,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전북 현대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전북은 1일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와의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 1-4로 대패했다.

1승1무3패(승점 4)가 전북은 최종 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2위 상하이 상강(중국·승점 9)과의 승점 차가 5점으로 크게 벌어져 역전 가능성이 없다.

조세 모라이스 전북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전반전에는 전술적으로 역습으로 노렸다.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후반전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전진 플레이를 펼쳤으나 이 부분을 상대가 역으로 잘 노렸다”고 총평했다.

전북은 올해 K리그1 최초 4연패와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이번 대회 들어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없었다.

이용, 쿠니모토가 부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고, 국가대표로 오스트리아 원정에 합류했던 손준호, 이주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우선이라는 구단 방침에 따라 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손준호는 올해 K리그1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핵심 자원이었다.

결국 코로나19와 부상으로 최상의 스쿼드 구성에 애를 먹었고,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모라이스 감독은 “최상의 전략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했다. 현재 팀이 처한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K리그와 FA컵을 제패했던 많은 선수들이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 경기가 남아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며 “감독으로서 많은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대회에 임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이스 전북 현대모터스 감독이 1일 카타르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FC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전북 현대모터스의 경기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다”고 보였다.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줬다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또한 “훗날 오늘의 경험을 잘 기억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은 4일 상하이를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서선욱기자

‘ERA 11.20’, 이적생 KIA 장현식의 절실한 고백

“안일했고 자신도 없었다”

“후회없이 준비하겠다”

KIA 타이거즈 우완 장현식(26)이 후회없는 2021시즌을 약속했다. 장현식은 지난 8월 12일 내야수 김태진과 함께 NC 다이노스에서 KIA로 이적했다. 불펜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적 후 28경기에 출전해 3승4패6홀드, 평균자책점 11.20의 부진한 성적을 남겼다.

선발투수로도 3번 나왔지만 모두 3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150km짜리 볼을 뿌리기도 난타를 당했다.

이적과 함께 재계약의 발판을 만들지 못했다. 마운드에서 자신감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계속되는 부진에 KIA도 트레이드 효과도 누리지 못했다.

마무리 캠프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장현식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되는 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안된 것 같다.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 한 해였다. 이 정도는 1군에서 던질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컸다.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후회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부진의 이유는 자신감에서 찾았다. “구속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KIA에 왔다.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해졌다. 나를 믿지 못했던 것 같다. 공 끝이 무뎠던 것도 있다. 그



신감과 믿음의 차이이다. 아무리 빨라도 내 공에 자신이 없으면 타자에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캠프에서는 체력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볼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일단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공 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던지는 자세가 높아서 낮추겠다. 슬라이더는 괜찮아졌다. 어떻게 제구하느냐에 초점을 두겠다. 스플리터와 체인지업 등 제 3구종이 필요하다. 그레도 직구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속세를 설명했다.

전 소속팀 NC는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루었다. “구속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KIA에 왔다.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해졌다. 나를 믿지 못했던 것 같다. 공 끝이 무뎠던 것도 있다. 그

기부여가 된다. 이대로는 안되겠구나? 나에게 너무 편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장현식은 2021시즌 보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발후보이기도 하다. 맷 윌리엄스 감독이 시즌 막판에 선발투수로 기용한 이유였다. 그러나 구위와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내년엔 반등을 못한다면 잊혀지는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장현식은 “나와 나이가 비슷한 선수, 어리다고 생각한 선수들이 많이 팀을 떠났다. 하루 하루가 마치 막이라고 생각하겠다. 내년에는 목표는 잡지 않겠다. 이 정도 했는데 실력이 만나면 역올할 정도로 훈련하겠다. 끝났을 때 역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정기자

프로축구 광주-박진섭 감독, 상호합의 계약해지기로 의결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광주FC와 박진섭 감독이 동행을 멈춘다. 광주는 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진섭 감독과 상호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감독은 2018년 광주 지휘봉을 잡고 부임 2년 만에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을 이끌었다. 올해는 K리그1에서 창단 처음으로 상위 그룹인 파이널A 진출을 이끌었다.

자분한 성향에 본인의 철학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도력까지 인정받으면서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고, 앞서 FC서울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박 감독이 광주와의 계약 만료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서울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은 커졌다.

박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구단에서 큰 결심을 해주셨다”며 “구단과 팬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프로축구 광주FC 박진섭 감독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광주 품에서 다시 한 번 도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박 감독의 거취가 결정됨에 따라 빠르게 후임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단 구성과 동계훈련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관계자는 “구단은 박진섭 감독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곧바로 후임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구단에 자신의 철학을 입힐 수 있는 감독을 영입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첫 승 쉽지 않네’...임시

사령탑 루니 첫 승 또 실패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더비 카운티의 임시 지휘봉을 잡은 웨인 루니가 또 첫 승에 아쉽게 실패했다.

더비 카운티는 2일(한국시간) 영국 프라이드 파크에서 열린 코벤트리 시티와의 2020~2021 챔피언십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더비 카운티는 후반 38분 콜린 카진 리차즈의 선제골로 승리를 눈앞에 뒀다.

후반 추가시간 코벤트리 시티의 구스타보 하메르에게 통탄의 동점골을 내주며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다.

이날 무승부로 최근 11경기 연속 무승(5무6패) 부진에 빠진 더비 카운티는 1승5무9패(승점 8)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에버턴 출신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낸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루니는 지난달 15일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필립 코쿠 감독 대신 임시 감독직에 올랐다.

더비 카운티에서 플레잉코치로 뛰던 루니는 감독 변신 후 치른 2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워킹 원더러스와 15라운드에서도 선제골을 이후 동점골을 내줘 비겼다.

서선욱기자

‘FA 1호 계약’ 김성현, SK와 2+1년·최대 11억 도장

“처음부터 다른 팀은 생각 안 했다”

내야수 김성현(33)이 2021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 1호 선수가 됐다.

김성현은 1일 원소속팀인 SK 와이번스와 계약기간 2+1년, 총액 1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세부 내용은 계약금 2억원, 연봉 2021년 2억5000만원, 2022년 2억원, 2023년 1억5000만원, 옵션총액 3억원이다.

SK는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한 김성현과 가장 먼저 FA 계약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

2006년 2차 3라운드로 SK에 입단한 ‘원클럽맨’ 김성현도 팀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구단은 “김성현이 유격수와 2루수 포지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FA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현은 통산 1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6, 35홈런 329타점 423득점 34도루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에는 2루수와 유격수로 135경기에서 나서 팀 우승에 힘을 보탤었고, 지난해는 유격수로 전경기(144)에 출전하기도 했다.

김성현은 계약을 마친 후 “계약 전부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먼저 협상에 임해주셨고, FA 체결식도 열어주셨다. 무엇보다 FA 1호 계약이라는 자부심도 심어주셨다. 처음부터 다른 팀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좋은 코칭스태프와 선수 선배들과 그리고 프런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제는 팀에서 주어진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FA 계약을 마무리한 만큼 내년 시즌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비시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희기자